

바리톤 이상은 독창회

이상은의
서정가곡,
자연환경가곡,
독일가곡
아리아

진행 및 해설 조난영
피아노 박성희
첼로 정예슬

BARITONE RECITAL

Sang Eun Lee

2024. 7. 10 (수)·오후 7시
푸르지오 아트홀

● 주최 : (사) 에코유스 ● 주관 : 큰물기획 ● 후원 :

Der Lindenbaum(보리수) F. Schubert

슈베르트가 30살에 Wilhelm Muller의 시에 곡을 붙인 24곡으로 구성된 연가곡 ‘겨울나그네’중 다섯 번째 곡인 Der Linden-baum은 ‘노래로만 부르기에 아까운 곡’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랑받는 곡이며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곡 중 하나다. 폭풍의 효과와 보리수 나뭇잎의 흔들거림을 묘사한 피아노 반주가 일품이며 청년이 겨울 여행 중 한 밤중에 불어닥치는 돌풍 중에서 보리수나무를 지나는 장면을 묘사한 곡. 독일에서 보리수는 위안과 안식의 상징이어서 밝은 느낌의 곡이다.

Widmung(헌정) R. Schuman

클라라와의 결혼 전, 슈만이 클라라에게 바친 헌정곡으로 가곡집 ‘미르테의 꽃(Myrthen)’ 중 첫번째 곡이다. 총 26곡으로 이루어진 가곡집 ‘미르테의 꽃’은 특정 시인의 시가 아닌 괴테, 라이네, 바이런 등의 여러 시인에 의한 시를 가사로 하고 있어 다른 연가곡처럼 일관된 음악적 흐름은 없다. 그러나 비교적 초기의 가곡집이라는 것에 있어 향후 슈만이 작곡할 가곡의 흐름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총 3부분으로 구성된 Widmung은 첫 부분과 둘째 부분은 반주의 음형이 바뀌며 클라라를 향한 슈만의 두근거리는 심장이 표현되며, 이어지는 셋째 부분에서는 첫째 부분이 반복되며 격화된 감정을 화려한 연주 방식으로 나타내는 곡이다.

‘Bei Mannern, welche Liebe fuhlen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 ‘Magic Flute’ W.A.Mozart

모노스타토스에게 붙잡힌 파미나 공주가 새장수 파파게노와 함께 부르는 1막의 2중창. 감동관인 무어인 모노스타토스에게 잡혀 있는 파미나가 죽여달라고 애원하다가 기절한 것을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 보던 파파게노가 방안으로 들어가자 모노스타토스가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도망친다. 파미나가 기절한 상태에서 의식을 되찾고 파파게노는 세 여인에게서 받은 초상화를 보고서 그녀가 바로 밤의 여왕의 딸인 것을 확인한다. 파파게노가 파미나에게 타미노 왕자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를 구하러 온다고 말해준다.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서 파미나는 결혼찬가를 부르는 파파게노와 합세하여 노래한다.

‘Nemico della patria’ (조국의 적이라고?) ‘Andrea Chenier’ U.Giordano

프랑스 대혁명을 주제로 한 U.Giordano의 오페라 “Andrea Chenier” 제3막의 아리아. 프랑스 대혁명의 중심인물이 된 제라르가 반혁명분자라는 명목으로 지식인들을 체포하는데 그 중에 세니에도 포함되어 있다. 세니에를 기소하기 위한 기소장을 쓰면서 부르는 아리아로서 사실은 세니에가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신을 비난하며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아리아.

‘Caro nome(그리운 그 이름)’ “Rigoletto” G. Verdi

공작이 떠나고 혼자 남은 질다가 가슴속에 그리던 남성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는 아리아이다. 벨칸토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를 위한 대표적인 아리아로 플루트의 감미로운 선율이 갖 사랑에 빠진 순진한 여인을 표현하고 있다. 질다는 ‘쿠티에르 말데’를 되 뇌이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순정을 노래한다.

‘Granada(그라나다)’ Agustin Lara

그라나다는 멕시코의 대 작곡가, 피아니스트이자 가수였던 아구스틴 라라가 1932년에 작곡한 칸시온(Cancion)으로 스페인의 도시 그라나다를 소재로 한 곡이다. 칸시온은 우리말로 ‘노래’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와 정신, 정체성이 함축된 의미이다. 라라는 그라나다에 가 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상상력과 감성으로 그라나다의 아름다움과 역사, 투우와 집시의 춤, 모어인의 눈동자, 장미꽃과 성모 마리아, 피와 태양과 어여쁜 여인들을 표현한 곡이다. 3부 형식의 곡으로,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아하고 낭만적이다.

PROGRAM

Baritone 이상은 ‘내일을 꿈꾸는’ 전세원 시 임금수 곡
‘편지’ 강명성 시 정애련 곡

Soprano 김현정 ‘Caro nome’ from “Rigoletto” G.Verdi
Sop. 김현정 Bar. 이상은 ‘Bei Mänern, welche Liebe fühlen’ W.A.Mozart
from ‘Magic Flute“

Sylvia & Bella Yoo (주민, 하민) ‘Bravo Brasilia’ G. Austin

Baritone 이상은 ‘동강은 흐르는데’ 박경규 시 곡
‘산아’ 신희철 시 신동수 곡

INTERMISSION

파파스 앙상블 ‘남촌’ 김동환 시 김규환 곡
‘그대 눈속의 바다’ 최종두 시 우덕상 곡

Baritone 이상은 ‘Der Lindenbaum (보리수)’ “Winterreise” No 5 F.Schubert
‘Widmung (헌정)’ Op.25-1 “Myrthen” R.Schumann

Sop. 이효숙 Bar 이상은 ‘사랑의 테마’ 조운파 시 김용년 곡
(flute: 이필한)

Soprano 이효숙 ‘Granada’ A.Lara

Baritone 이상은 ‘Nemico della patria(조국의 적이라고)’ U. Giordano
from “Andrea Chenier”

Baritone 이상은

경기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75년 도미하여 ‘81년 U.C., Berkeley에서 환경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제약회사인 Merck의 선임연구원을 시작으로 50년동안 환경학자로서의 삶을 이어오고 있음. 84년 귀국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부원장을 역임하였고 98년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현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을 지낸 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아주대학교 교수 및 산업대학원장으로 재직하였고 정년 후에는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하였음.

대한환경공학회와 환경정책학회 등 양대 학회의 회장과 전국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상임회장으로 봉사하였고 2011년 환경분야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환경한림원을 창립하여 6년간 회장으로 활동하였음.

현재는 (사)에코유스 이사장으로 봉사하면서 교육과 심포지엄을 통해 청소년들의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 2003년 세계환경의 날 환경보전유공자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대학시절부터 교회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음악과 늘 가까이 해 온 이상은 Baritone은 교회 성가대의 솔리스트를 맡게 된 후 성악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2000년대 중반부터 성악 레슨을 받기 시작한 이후 20년 가까이 아마추어 성악가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성악동호회 ‘데미즈’ 회장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가곡사랑’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벨라보체’ 회장, 페트라 고문, 한국가곡사랑연주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마추어 솔리스트 남성중창단인 ‘파파스앙상블’의 단원임.

진행 및 해설



M. Soprano 조난영

이태리 로마 성악아카데미 디플롬 수료
이태리로마시립예술학교 지휘디플롬 수료
한국합창지휘자 아카데미수료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 등 마스터클래스수료
현)창원시립합창단원
MBC경남 열려라 라디오 “문화산책” 진행
공연기획 안무자 및 각종클래식음악회
해설프리랜서 활동 중

특별출연

Sylvia & Bella Yoo (유주민 유하민)

Vassiliadis Elementary School (Las Vegas)
여러 Local Piano Competition 입상



찬조출연

Soprano 김현정



이화여자대학교 종교음악과 졸업
이태리 G.Briccialdi 국립음악원 졸업
A.I.D.M Academia 최고연주자과정 디플롬
오페라 갈라콘서트 가곡의 밤 등 다수 공연
인씨엠예술단 소속 전문연주자
동국대학교 문화예술최고위과정 교수 역임
한국문예원 주임교수
블리스중창단 지휘자

특별출연

Papas Emsemble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비전공자 14명으로 구성된 남성중창단으로 2021년 창단되었으며 직업과 삶의 분야는 다르지만 음악을 애호하는 뜻있는 장노년세대 구성원들이 믿음 생활을 바탕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음악을 통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Piano 박성희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이태리 오르페오 아카데미아 오페라반주 디플롬
이태리 도니체티 아카데미아 오페라반주 디플롬
독일 하이델베르크 교회음악대학 피아노, 가곡반주과 졸업
계원외고, 서울장신대학교 컨서바토리 외래교수
코리안싱어즈 반주자, 기획사 큰물 대표, 마르조음악연습실 대표

Soprano 이효숙



이태리 Bergamo Donizetti 국립음대 Cantarpartando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Vienna 시립음악원 디플롬
서울종합예술원 성악과 졸업
가곡과 앙상블의 밤 및 생명나눔콘서트 협연
한사랑문화예술협회 연주분과위원장
고 백선엽장군 추모음악회 기획단장
자선독창회 4회, ‘음악에 기대어’ 회장



Cello 정예슬



추계예술대학교 관현악과 졸업
강동첼버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칼로스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내일을 꿈꾸는

전세원 시 입공수 곡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허덕이며 울고 싶을 때
희망의 내일을 아름다운 내일을
가꾸는 마음 곱고 가룩한 맘 주소서
어려움 앞에 힘든 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기쁜 소식에 여유와 행복을, 슬픈 소식에 아린 눈물을
아픈 현실에 용서와 믿음을 주시어
아름다운 세상 가꾸는 우리 원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는 우리 마음을 원합니다
손길이 다으면 기쁨에 벅찬 벅찬 가슴 피어나
모두 이해와 사랑할 수 있는 하얀 마음을 주소서
손을 내밀며 사랑할 수 있는 하얀 마음을 주소서
하얀 마음을 주소서

동강은 흐르는데

박경규 시, 곡

푸른물 흘러흘러 강원유곡 백삼십리
강허리에 흰빛자갈 눈빛을 가른다
정선평창 기암절벽 굽이마다 돌고돌아
징검다리 건너 어라연에 영월동강 굽이치네
아~ 높고 낮은 산자락에 하얀구름 머무르고
이슬맺힌 맑은 햇살에 동강은 흘러 흐르는데

조양수 흘러흘러 가수리길 동남천에
강허리에 적빛 자갈 눈빛을 가른다
청령포 어린 단종 두견도 울고울어
거운교 건너 문산나루 영월동강 굽이치네
아~ 높고 낮은 산자락에 뭉게구름 머무르고
풀빛맺힌 푸른하늘에 동강은 흘러 흐르는데
동강은 흘러 흐르는데

사랑의 테마

사랑 그것은 정녕 그리움 노을 빛 처럼 타는가
가슴 가득히 설레는 바람 잠들지 않는 불꽃
사랑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네
사랑 보내지 않아도 떠나가네
사랑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오 사랑이여
사랑 그것은 오랜 기다림 강물과 같이 흘러
마음 가득히 넘치는 기쁨 멈추지 않는 행복
사랑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네
사랑 보내지 않아도 떠나가네
사랑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오 사랑이여
사랑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오 사랑이여

편지

강명성 시 정애련 곡

산등성이 앉아 멀리 떠나는 열차
바라보며 너를 생각해 너를 생각해
저 열차 타고서 네게 갈 수 있다면
보고 싶은 너에게 갈 수 있다면 우~ 우~
꼭지손 간절이며 함께 속삭여 걷는 길
하얗게 물결치는 망초꽃도 내겐 보이지 않겠지
보듬고 앉은 바스락 풀덤불 은하수 별뿔별 내리고
세상에 우리 둘만 있을 거야
너에게 갈 수 있다면

산아

신홍철 시 신동수 곡

산아 사랑하는 내 고향의 산아
종내 너를 두고 나는 가누나
내 마음의 무게이고
내 녀의 크낙한 날개여 두팔로 내 목을
얼~싸~안고 안타까이 나를 올리는 사랑아
산아 내 고향의 산아 잘 있거라
오~내가 죽어서도 돌아올 보금자리여
어디 메~물험다가도~되돌아와 문힐
내 내무덤이여~
오 눈익은 뿔부리 뿔부리여
살~뜯한 골짜기 골짜기여
언~제 돌아온단 기약도 못한 채
종내 나는 떠나가누나 잘 있거라 잘있거라
잘 있거라 산아 산아
아~ 사랑하는 내 고향의 산아

조운파 시 김용년 곡

사랑 그것은 정녕 외로움(외로움)
채울 수 없는 바람(바람)
아침 햇살에 빛나는 꽃잎
남몰래 타는 촛불
사랑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네
사랑 보내지 않아도 떠나가네
사랑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오 사랑이여
사랑이여